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마 18:18-20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큰일을 앞에 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절기 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응답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1970년대에서 80년대 9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150만 명씩 여러 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때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크신 도우심을 한국 민족과 한국교회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가정과 교회 나아가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행 1:13-14에 “그리고 자기들이 묵고 있던 2층 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회를 열었다. 도회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매,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의 어머니를 비롯한 몇 사람의 여자들이 참석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기도해도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 수효가 120명이었는데 10일을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은 것이 임하여 있더니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큰일을 말했습니다. 이 성령의 불길은 놀라워서 예루살렘을 복음화 시키고, 나아가 사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이방 지역을 복음화 시켰습니다.

이처럼 함께 모여 능력을 받으면 그 지역 혹은 그 나라와 민족 나아가서는 세계까지도 복음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하십니다. 혼자 능력 받아도 엄청난데 단체가 능력을 받으면 상상치 못할 만큼 크게 쓰십니다. 미국의 해안도시 펜사콜라에서 일어난 부흥운동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매일 같이 모여서 회개하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지 3-4년이 되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은 물론 그곳에 오는 사람마다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운동도 그렇습니다. 모여서 기도한 결과가 집회를 통하여 터져서 민족복음화의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새 나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헌법 제정 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소집되었습니다. 그 때 그들은 한 가지도 의견일치를 못보고 서로 분열하여 퇴장하려고 할 때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나라는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탄생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릎을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어려운 궁지와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를 기다립시다.” 그 제안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고 드디어 불후의 문서인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고 큰일을 하게 하십니다.

2. 모여서 기도할 때 귀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행 13:2-3 에 “하루는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기도를 끝낸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떠나보냈다.”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교회적인 사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한 개인도 기도할 때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적 사명, 국가적 사명이 주어집니다. 전 교인이 하나 된 사명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그 때는 엄청난 큰일을 이루어냅니다. 전 교인이 하나 되어 어떤 일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불평도 불만도 없이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자녀 드려서 충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그 교회는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든지 크든지 작든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세계선교에, 어떤 교회는 군 선교에, 어떤 교회는 노인복지에, 어떤 교회는 장애복지에, 또 어떤 교회는 담임목사 부흥운동을 기도로 돕습니다. 제가 아는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일 년 52 주 내내 부흥회를 나가도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매일 같이 모여서 기도로 돕는 것을 교회적 사명으로 압니다. 그렇기에 그 부흥사는 가는 곳마다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해 주는 교인 하나 없이 외롭게 홀로 나가는 목사님과 전 교회가 기도로 밀어주는 목사님과 그 결과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렇게 기도로 지원해 주는 교회 치고 부흥 안 된 교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또 부흥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본교회로 은혜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한 달에 한 번 부흥회를 나가도 많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 주실 사명이 무엇인지 모여서 기도하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3. 모여서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마 18:18-19 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매어 놓은 것은 무엇이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 놓은 것은 무엇이든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초대의 기독교 교부(Church Father)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은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잡꾼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에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천둥의 진행을 막는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능력 선언입니까?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아브라함 링컨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온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한번은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James Murdock)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다 새벽에 링컨의 기도 소리에 잠을 깬 적도 있었습니다.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종종 전쟁터를 찾았는데 그때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 사령부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내걸리곤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링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Robert Edward Lee)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모여서 기도하면 결박이 풀립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사명이 주어집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느슨해진 우리의 기도를 강화시켜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